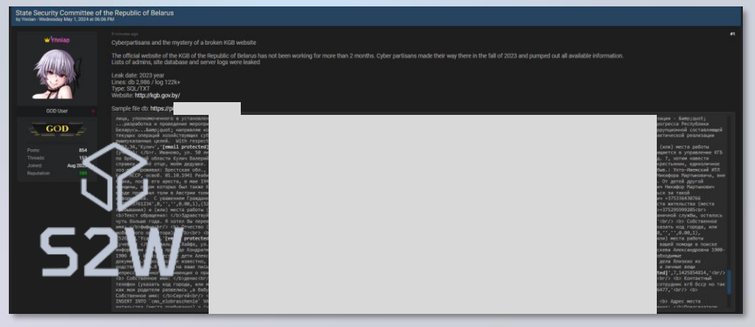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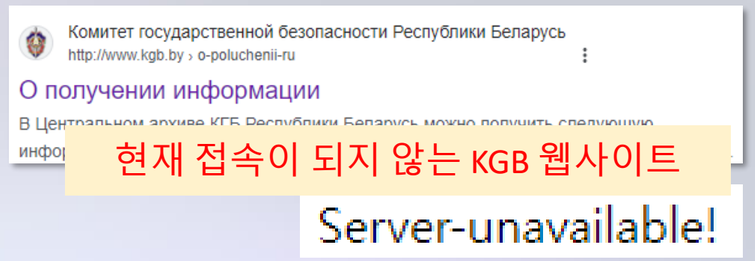
Dark web & Telegram
Weekly Highlights

May Week 1

벨라루스 KGB 웹사이트 내부 자료 유출. 서버 로그, 직원 정보 등 포함. 반정부 단체 소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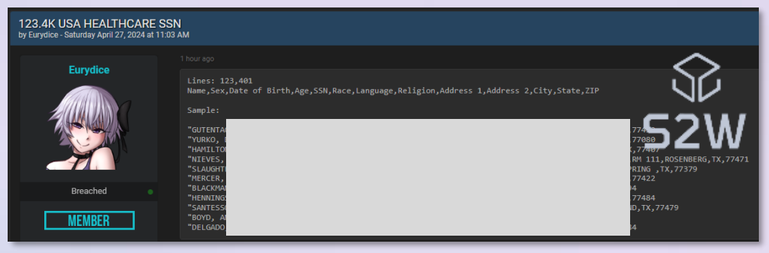
- 벨라루스의 정보 기관, 국가 보안 위원회 “KGB”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어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
- 지난 5월 1일, BreachForums에서 활동하는 유저 Ynnian이 업로드한 포스팅은 벨라루스 KGB의 내부자료를 유출하는 내용으로 피해 기관의 서버 로그와 직원의 개인 정보와 같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 유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주동자는 Cyber Partisans라고 불리는 해킹 그룹으로 이들은 벨라루스의 독재적인 정권에 대항해 정부 기관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핵티비스트 그룹으로 알려져 있음
- 포스팅 내용에 의하면 벨라루스 KGB의 웹사이트는 최소 2달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해커들이 데이터를 유출한 시기는 작년 가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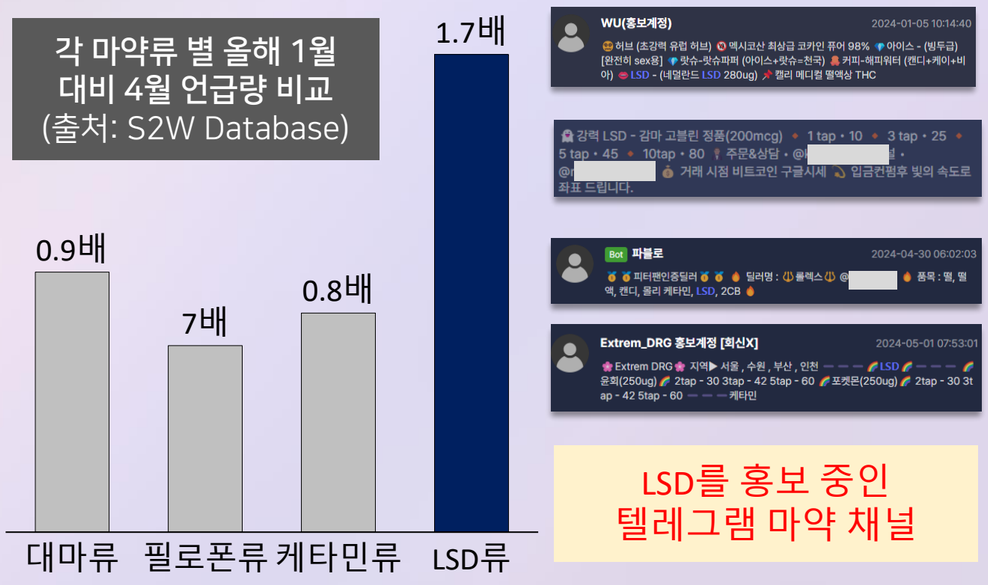
미국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 유출 포착. 미국 內 의료 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 논의 중

- 미국 소비자들의 사회보장번호 (SSN)을 포함한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가 유출되어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공유되고 있음
- 지난 4월 27일, BreachForums에서 활동하는 유저 Eurydice는 약 12만명 미국 소비자들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유출했으며, 그가 샘플로 공개한 데이터에는 각 소비자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 번호와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 몇 년 간 의료 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 중인 가운데 지난 2월 미국 UnitedHealth Group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이후 미국 사회적으로 의료 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한국 텔레그램 마약 채널 내 LSD 관련 언급량 증가세. 올해 1월 대비 약 1.7배 급증

- 올해 1월 이후, 텔레그램 내 마약 언급량이 소폭 하락세인 가운데, 7대 마약 중 하나인 LSD는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S2W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대마초, 필로폰, 케타민 등과 같은 마약의 언급량이 작년 한해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 1월부터 소폭 하락세에 있으나, LSD는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언급량이 증가해 4월에는 언급량이 1.7배 가량 증가했음
- LSD는 강력한 환각성 마약으로 종이 형태를 띄고 있어 우편이나 서류에 같이 섞여 유통이 되어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COPYRIGHT © 2024 S2W Inc. All rights reserved